

2015

global dream
company:

CONTENTS

01	Global Dream Company
02	CEO's Message
06	Board of Directors
08	About LS Networks
09	About LS Group
10	Corporate History
11	Business Overview
22	Financial Highlights
24	Management's Discussion & Analysis
30	Financial Statement

회사의 비전과 구성원들의 비전이 일치할 때,
그 기업은 미래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LS네트웍스는 'Global Dream Company'라는 비전 아래
건강한 인재들이 새로운 사고와 전문성으로
미래의 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LS네트웍스는 주주 및 고객, 구성원들에게
더 큰 가치를 돌려드리기 위해 도전과 혁신의
발걸음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Global Dream Company'는 LS네트웍스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꾸는 꿈입니다.



2016년에는
핵심사업 내실화와
성장 가능성 확보에
회사의 역량을 총 집중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및 고객 여러분!

항상 저희 LS네트웍스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에도 행운과 건강이
여러분의 일상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15년은 우리 모두에게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미국 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수요 둔화,
중국의 성장 저하,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자원
수출국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세계 교역이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역시 성장 둔화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작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메르스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당사의 주력사업인 브랜드사업의 매출 감소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상사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사의 전략 지역인
러시아 및 CIS 국가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경제 제재와 유가 하락
조치로 인해 그동안 이뤄낸 매출액의 채권 회수가 장기화되면서
대규모 대손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도
경영실적은 안타깝게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안팎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주주 및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에는 핵심사업 내실화와 성장 가능성 확보에 회사의
역량을 총 집중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주 및 고객 여러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016년의 경제 상황 역시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반등하고 소비 심리도 부분적으로
개선되는 등의 일부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세계 경제 회복세의 약화와 불안정한 중국 경제 상황으로
수출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가계 부채, 부동산 경기 불안,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내수 회복세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고객의 믿음과 신뢰를 이어 가는 유일한 방법은 확실한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LS네트웍스의 임직원들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어려운 대외 여건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면서 재도약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6년에는 '여럿이 협력하면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도 타개할 수 있다'는 뜻인 '절전지훈(折箭之訓)'의 정신으로 무장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강한 회사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를 위해 LS네트웍스는 2016년, 다음과 같은 경영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철저한 리스크 및 투자 관리를 통해 각 사업별 강점과 핵심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첫째, 성과를 최우선시 하는 '강한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경영의 본질은 이익을 내는 것입니다. 수익을 내지 못하는 적자사업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처방을 내리고, 성과에 저해가 되는 요인이 있다면 철저하게 파악하고 대처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조직 구성원들의 마음과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LS네트웍스의 임직원 모두는 한마음 한 뜻으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올해의 경영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입니다.

둘째, 생존 및 지속 가능한 경영기반 구축을 위하여 사업 포트폴리오를 핵심 역량 위주로 재편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기가 상시화 되고 있는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는 어떤 기업도 미래의 생존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직을 재정비하고, 철저한 리스크 및 투자 관리를 통해 각 사업별 강점과 핵심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LS네트웍스는 명확한 업무 목표를 기준으로 각 사업별 핵심 역량을 결집시켜 모든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브랜드사업은 디자인과 품질 혁신을 통해 주력 아이টে을 강화하고, 글로벌사업은 내실 위주의 경영관리를 통해 수익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기업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승진제도 개선 및 인재육성 체계 구축 등 성과관리 체계의 정교화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및 고객 여러분!
2016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은 시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LS네트웍스의 임직원들에게 명확한 목표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에 올해가 두렵지만은 않습니다. 임직원 모두가 합심단결하여 한발 앞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시장을 견인해 나간다면 지금의 위기 상황은 곧 기획의 장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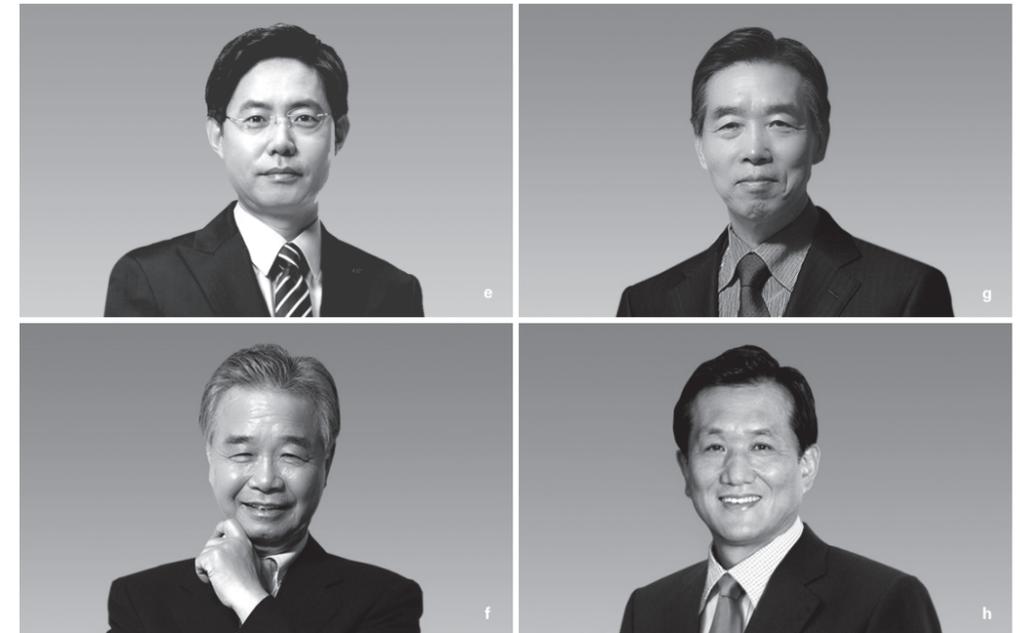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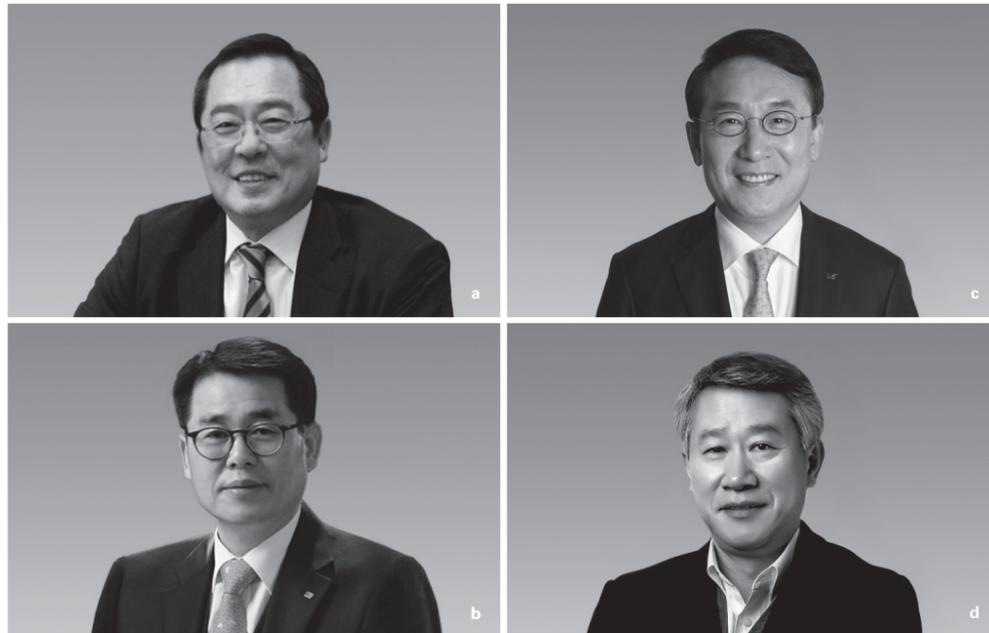
LS네트웍스 임직원들은 고객과 주주에게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기 위해 과감하게 도전하고 치열하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내년에는 주주 및 고객 여러분께 기쁘고 희망찬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Global Dream Company'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LS네트웍스 임직원들에게 지금까지와 같은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S네트웍스 대표이사
이경범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 구조는 기업의 선진성·건전성뿐 아니라 미래 가치를 가능하는 중요한 지표이자, 이를 견인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LS네트웍스는 일찍부터 선진 지배 구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는 출범 당시부터 투명성을 강조해 온 그룹의 경영 철학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이사회는 독립성을 가진 사내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LS네트웍스는 이사회를 통해 중장기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등 투명경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경영자는 책임경영의 원칙에 따라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회사를 소신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LS네트웍스 이사회는 총 14회의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24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24건의 안건을 결정하였으며, 참석률은 100%였습니다.



a. 구자열 회장

- (現)LS그룹 회장 (2013~)
- LS전선/엠펙론 사업부문 회장 (2009)
- LS전선/동제련/엠펙론 사업부문 부회장 (2008)
- LG전선 대표이사 부회장 (2004)
- LG전선(現 LS전선) 대표이사 사장 (2003)

b. 구자용 회장

- (現)LS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 (2016~)
- (現)E1 대표이사 회장 (2011~)
- E1 대표이사 부회장 (2009)
- E1 대표이사 사장 (2005)

c. 이경범 대표이사

- (現)LS네트웍스 대표이사 부사장 (2016~)
- LS네트웍스 브랜드사업본부 부사장 (2014)
- LG패션 신사캐주얼 부문장 부사장 (2008)
- LG카드 직할영업본부 본부장 상무 (2004)

d. 윤선노 대표이사

- (現)LS네트웍스 대표이사 부사장 (2016~)
- (現)E1 재경본부장 부사장 (2016~)
- E1 재경본부장 전무 (2013)
- E1 재경본부장 상무 (2011)

e. 김용선 이사

- (現)LS네트웍스 기획/재경부문장 이사 (2016~)
- LS네트웍스 재경부문장 이사 (2014)
- LS네트웍스 재경팀장 수석부장 (2011)
- LS네트웍스 경영기획팀장 부장 (2009)

f. 오호수 사외이사

- (現)LS네트웍스 사외이사 (2010~)
- 한국증권업협회 회장 (2001)
- LG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1998)
- 대우증권 부사장 (1996)

g. 금병주 사외이사

- (現)LS네트웍스 사외이사 (2007~)
- 우성아이앤씨 대표이사 사장 (2007)
- LG상사 대표이사 사장 (2004)
- LG상사 패션사업부문장 부사장 (2000)

h. 박중웅 사외이사

- (現)LS네트웍스 사외이사 (2016~)
- (現)삼일정강 대표이사 (1992~)
- (現)삼일기업공사 대표이사 사장 (1990~)
- 모나미 사외이사 (2004)

LS네트웍스는
브랜드·유통 및
상사 분야의
전문 기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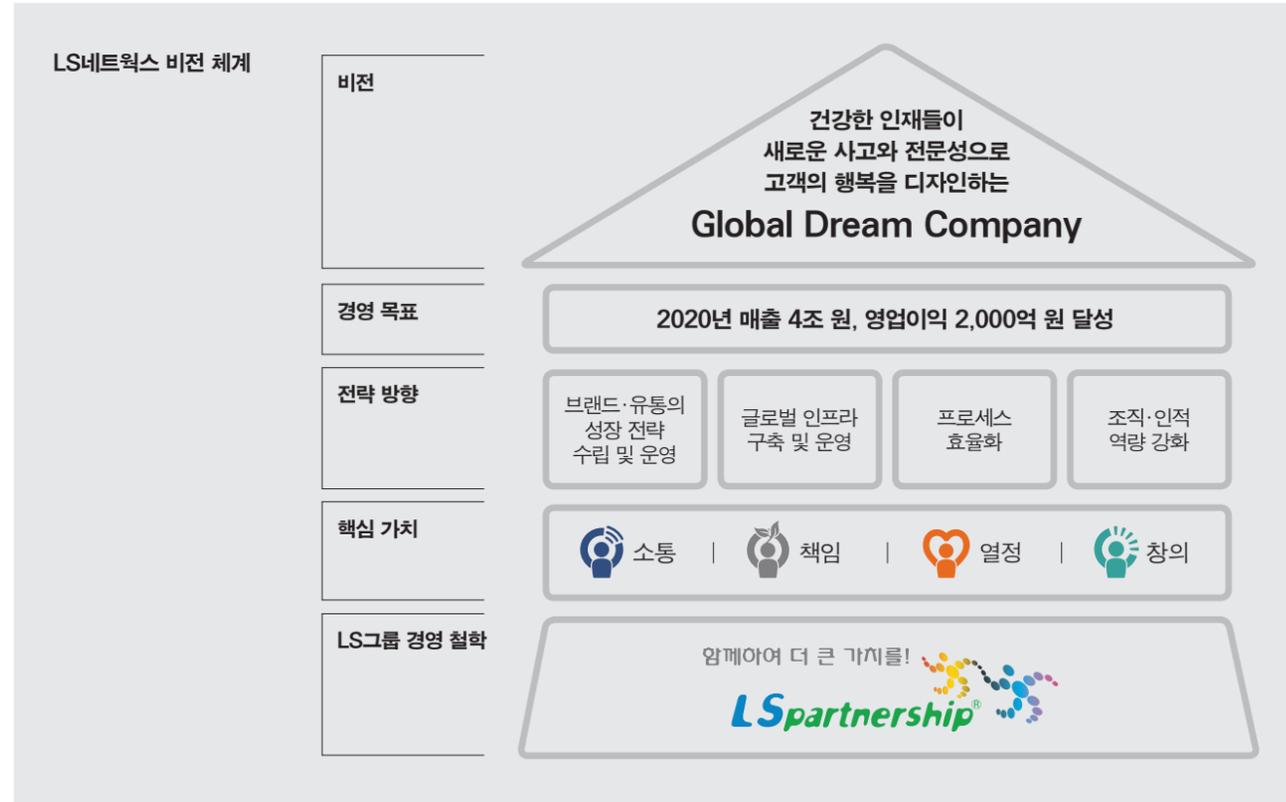
LS네트웍스는 LS그룹에서 소비재 부문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계열사입니다. 기능과 디자인 모두 고객을 만족시키는 제품으로 스포츠·아웃도어 브랜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러시아·중앙아시아·CIS 등의 전략 지역에서 상사사업으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며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LS네트웍스는 'Global Dream Company'라는 새로운 비전과 함께 '2020년 매출 4조 원, 영업이익 2,000억 원 달성'이라는 경영 목표를 수립하고, 브랜드·유통의 성장 전략 수립 및 운영, 글로벌 인프라 구축, 프로세스 효율화, 조직·인적 역량 강화의 네 가지 전략 방향에 맞춰 전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LS네트웍스는
전기·전자 및 소재 분야의
글로벌 리딩 기업
LS그룹과 함께합니다

LS그룹은 LS전선·LS산전·LS-Nikko동제련·LS엠트론·E1 등을 주축으로 전기·전자 및 소재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2007년 LS네트웍스의 전신인 (주)국제상사를 인수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B2B 중심에서 B2C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LS그룹은 지주회사인 (주)LS를 중심으로 책임경영을 실천하며 연구 개발(R&D)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미래 성장 동력 및 신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스마트 그리드·미래형 자동차 부품 및 솔루션 등의 친환경 산업에 집중하는 한편, 존중·배려·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LSpartnership®의 경영 철학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1949~1980: 태동기

- 1949 국제화학(주) 창립
- 1962 농구화 국내 최초 수출
- 1969 사상공장 가동
- 1973 기업 공개(KOSPI 상장)

1981~1997: 성장기

- 1981 자체 브랜드 프로스펙스 개발, 미국 씨어스 사에 5,000만 족 수출
- 1982 뉴델리아시안게임 출전 선수 후원
- 1983 스포츠제품 과학 연구센터 설립
- 1984 (주)국제상사로 상호 변경
전문 경기화 31족 개발
LA올림픽 출전 선수 후원
- 1985 용산사육 완공 및 입주
- 1986 서울아시안게임 공식 후원 업체
프랑스 사텍 사와 브랜드 수출 계약
우리 상표 전시회 상표대상 수상, 40여 개국에 상표 등록 출원
- 1987 이탈리아 말소 사와 브랜드 수출 계약
북유럽 4개국 총판 체제 구축
파키스탄 하키편회 공식 후원
- 1988 서울올림픽 공식 후원 업체
- 1992 그랜드슬램 테니스화 200만 족 생산 돌파
- 1994 신발 밀착용 특수고무 AI-5100 개발, ISO 9001 인증 획득
- 1995 운동화·등산용품 우수산업디자인(GD) 마크 획득
통상산업부 '일류화상품표시 승인업체'로 지정
- 1997 프로스펙스컵 프로축구대회 참설

1998~2007: 조정기

- 1998 국가고객만족도(NCSI) 스포츠화 부문 1위
- 2000 법정 관리(~2007)
- 2007 LS그룹 계열사 편입

2008~현재: 도약기

- 2008 (주)LS네트웍스로 상호 변경 및 프로스펙스 신규 BI 론칭
(주)오디캠프(몽벨 브랜드 운영사)를 자회사로 편입
- 2009 스포츠 워킹 전문 브랜드 W 론칭
(주)FAST(스케쳐스 브랜드 운영사) 흡수 합병
유럽 아웃도어 브랜드 잭올프스킨 전개
토요타(TOYOTA) 자동차 딜러사업 진출
- 2010 상사 업무 전개
자전거 전문 브랜드 바이클로(biclo) 전개
LS용산타워 리모델링 공사 완료(2007.11~2010.3)
- 2011 아웃도어 라이프 멀티숍 워킹톡(WALK&TALK) 전개
(주)스포츠모터사이클 코리아 인수
중국 현지법인 설립
자회사 오디캠프 흡수 합병
몽벨, 베이징 현지 직영 1호점 개설
모스크바 및 블라디보스토크 지사 설립
(주)흥업 인수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 2012 신규 비전 및 가치 체계 수립
평가 및 보상 제도 개선
카자흐스탄 광통신 기자재 공장 준공(알파 네트워크 JV)
바이클로 아카데미 개원
대한민국 브랜드대상 지식경제부장관상 수상
- 2013 토요타 딜러사업 분사
- 2014 바이클로 아카데미,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LS네트웍스 매출 8,000억 원 돌파
- 2015 프로스펙스 'W POWER 워킹화'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제품 인증 획득
프로스펙스 워킹화 3종, '2015 굿 디자인' 수상
제4회 한·러 비즈니스 어워드 한국 기업 최우수상 수상

Business Overview

Brands Business



프로스펙스

프로스펙스(PROSPECS)는 2009년 'W 워킹화' 론칭과 함께 국내 워킹 트렌드를 선도하며 스포츠 워킹화 No.1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2년 프로스펙스는 브랜드 상징인 비를 과감히 바꾸고 피겨 퀸 김연아를 모델로 하여 10~20대 젊은 층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는 한편 정장에 워킹화를 신는 새로운 도시 트렌드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2013년에는 김연아와 감성 밴드 '씨앤블루'를 모델로 하여 일상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젊고 감각적인 워킹 문화를 선도했으며, 2015년에는 tvN 드라마 '미생'으로 사랑을 받았던 주인공 '강소라'와 '강하늘'을 메인 모델로 하여 브랜드 호감도를 대폭 높였습니다.

최근 스포츠와 아웃도어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라이프스타일 상품군이 호조를 띄는 가운데 스포츠 시장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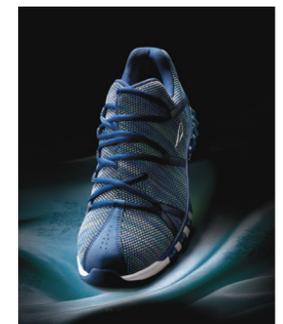
이에 프로스펙스는 W 파워(W POWER)의 워킹 정통성 및 W 사이언스(W Science) 기술 기반의 전문성을 토대로 워킹화 리더십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출시된 W 파워 제트 스프링(W POWER Z-SPRING)은 국내 신발류 최초로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제도) 인증 마크를 획득하여 국제 기준의 품질력과 대외 신인도를 확보하는 동시에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출시되는 워킹화 3종(IMPULSE, Z-SPRING, BLADE)은 '2015 굿 디자인 어워드'에서 우수 디자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김희애를 새로운 모델로 하여 건강한 스포츠 워킹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프로스펙스는 W 파워를 기반으로 워킹화 리더십을 견고히 하는 한편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브랜드 및 제품 경쟁력 제고에 역량을 더욱 집중하여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스케쳐스

스케쳐스(SKECHERS)는 기능성 스포츠화, 라이프스타일, 패션스트리트, 캐주얼, 키즈에 이르기까지 16개가 넘는 카테고리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멀티 카테고리 단일 브랜드로, 한 매장에서 매년 7,000여 개의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탁월한 품질과 디자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진출해 있으며, 미국 시장에서는 나이키에 이어 매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LS네트웍스는 2009년 5월 토털 스포츠 브랜드로 스케쳐스를 론칭하였으며, 2011년에는 '양말 하나 신은 것' 같은 편안함과 다채로운 컬러를 갖춘 웨이프업스 리브(Shape-ups Liv)를 출시해 압도적인 판매 신장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2013년 메가 히트 아이템인 딜라이트 익스트림(D'Lites EXTREME)은 2015년까지 판매 누계 100만 족을 기록하며, 10~20대 젊은 층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2014년에는 귀여운 팬더를 모티브로 한 딜라이트 익스트림 골든 팬더(D'Lites EXTREME Golden Panda)를 출시하여 패션 슈즈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으며, 2015년에는 골든 팬더에 이어 와일드 팬더, 다크 팬더 그리고 2016년 딜라이트 오리엔탈을 출시하며 딜라이트 시리즈의 성공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케쳐스는 160여 개 국내 유통망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기술력과 제품력을 앞세워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최고 히트 아이템으로 급부상한 딜라이트(D'Lites)의 마케팅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후속 모델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리브(Liv)와 고워크(GOWalk), 혁신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고 시리즈(Go Series)를 통해 국내 스포츠 시장에서 워킹 및 러닝 부문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요가를 중심으로 한 피트니스와 러닝 등 전문 스포츠 의류 시장에서도 다채로운 스타일과 새로운 디자인의 혁신 제품을 출시하여 글로벌 토털 스포츠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입니다.





몽벨

몽벨(mont-bell)은 일본 최고의 산악인 이사무 다츠노가 1975년에 설립한 아웃도어 브랜드로, '프랑스어 '몽(mont:산)'과 '벨(bell:아름다운)'을 합성해 '아름다운 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2008년 LS네트웍스는 몽벨을 한국 시장에 론칭하여 국내 아웃도어 업계의 새로운 강자로 성장시켰습니다. 몽벨은 독자적인 기술력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치열한 아웃도어 경쟁 환경 속에서 독자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를 확고히 하는 한편, 한층 더 가볍고 업그레이드된 '초경량성' 제품들을 선보이며 브랜드 입지를 강화시켜 왔습니다. 특히, 초경량 7D(데니어) 방풍 재킷, 초경량 7D 고어텍스 재킷, 초경량 UL 1000FP 다운재킷 등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2013년에는 산악인 김창호 대장이 달성한 '아시아 최초 히말라야 14좌 무산소 등정'을 후원하며, 단 1g의 헛된 무게도 허용하지 않는 초경량성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습니다. 2014년에는 영화배우 이정재를 모델로 하여 트렌디한 감성과 신뢰감을 브랜드 이미지로 구축하는 한편 브랜드 콘셉트인 'Light & Fast'를 모든 제품에 적용하여 어떤 아웃도어 환경에서도 몸을 보호하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해주는 최상의 기능성 아웃도어 제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16년 몽벨은 어슬레저 열풍에 발맞춰 기존 트레킹(Trekking) 라인을 중심으로 아웃도어 애슬레틱(O/D ATHLETIC), 바이크(BIKE), 도기(DOGGY) 등의 신규 라인을 새롭게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몽벨만의 우수한 제품력과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브랜드 콘셉트를 더욱 견고히 하고, 다른 아웃도어 브랜드와 차별화된 제품 개발과 함께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 등을 통해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아웃도어 브랜드로서의 명성을 이어나가겠습니다.

Global Business



글로벌사업본부

LS네트웍스는 2010년부터 상사사업을 통해 회사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자원사업에 힘을 쏟는 동시에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 특화된 '지역 전문 상사'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원·원자재

자원 트레이딩은 초창기부터 주목했던 사업으로 현재 석탄·기타 금속 광물의 수입 및 삼국 간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자원 수출과 자원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계·중장비·선박

2013년부터 굴삭기·휠로더·콘크리트 펌프카·트랙터 등 신뢰성 높은 국내 건설장비를 주요 전략 시장에 공급해 왔으며,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크레인이나 유압 드릴 등으로 사업 분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러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젝트 인프라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14년에는 극동 지역에 있는 유즈노사할린스크 국제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사업 타당성 분석과 마스터플랜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카자흐스탄 알마티

신공항 사업 타당성 분석사업을 수주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력·신재생·신사업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력 인프라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중동 및 아프리카에 플랜트 및 플랜트 기자재 공급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사업 등 중장기 수익 기반 확보를 위한 신사업 발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LS네트웍스의 상사사업은 초기 자원·원자재 중심에서 전력·신재생·신사업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 하락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지만 더욱 차별화된 경쟁력과 현지에 최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내실 위주의 안정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orporate Culture



기업문화

인사제도

LS네트웍스는 핵심 가치를 내재화하기 위해 인재 채용, 평가, 보상, 교육 등 주요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운영하였습니다. 팀장을 대상으로 평가, 면접관 교육을 실시해 인재 발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 리더십 교육을 통해 조직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자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직위별 승진 연한을 조정하고 승진제도 또한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더불어 전사업무에 대한 직무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우선 직무체계를 구분하고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틀이 될 것입니다.

준법경영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준법경영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영속성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경영요소입니다. 준법경영을 기업문화로 정착하기 위해 LS네트웍스 전 임직원은 회사 업무 수행 시 국내외 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며, 나아가 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전담 조직을 구성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리스크(Risk)를 사전 예방하고, 임직원 준법 교육을 의무화하여 인사 평가에 반영하는 등 준법경영을 확고히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협력사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동시에 업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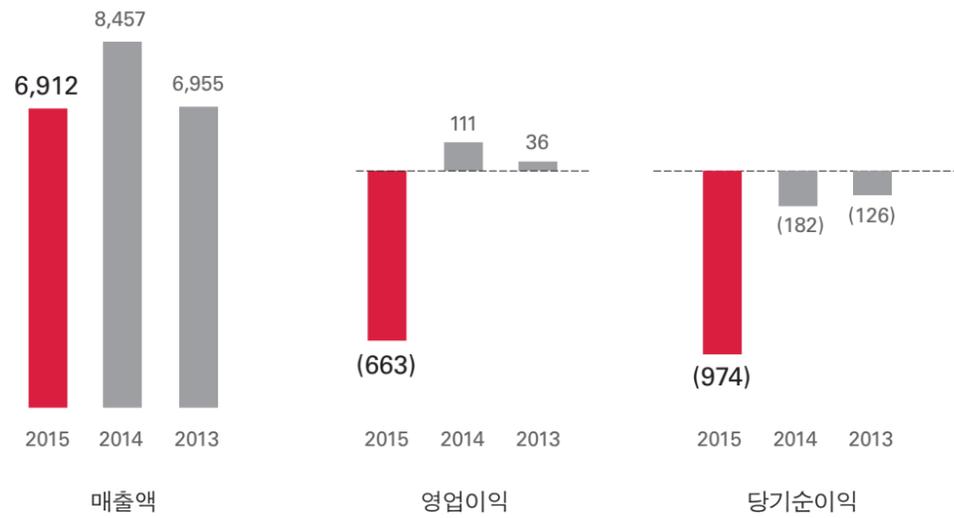
매거진 <보보담>

LS네트웍스는 아웃도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업의 특성을 살려 2011년 여름, 계간 아웃도어 인문 교양 매거진 <보보담>을 창간하였습니다. <보보담(步步譚)>은 '걸으며 함께 나누는 이야기'라는 뜻으로 매호 국내 한 개 지역 혹은 인접한 두 개 지역을 선정해 그곳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지역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에 주목함으로써 '한국의 인문 풍경을 아카이빙 하는 잡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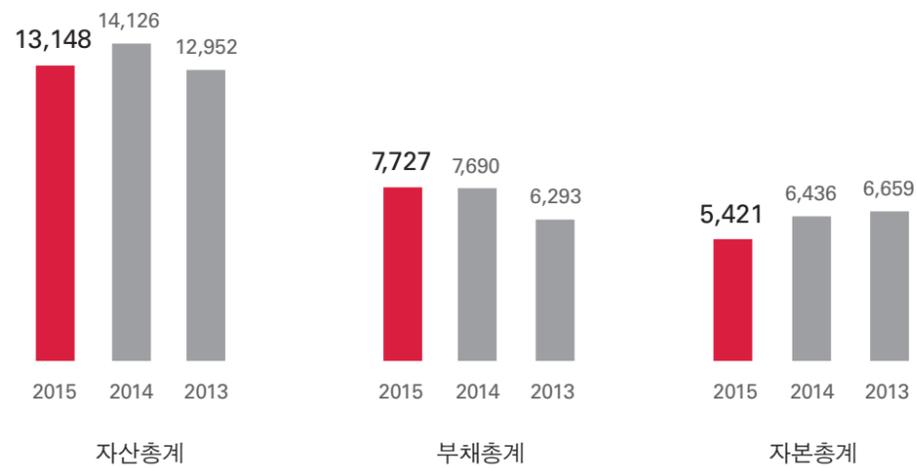
또한 국내 지역과 연관성을 가진 해외 지역의 역사와 문화도 함께 소개해 국내외 지역 문화를 보다 깊이 있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하고 있습니다. LS네트웍스는 연 4회, 전국 1,000여 곳의 공공도서관과 대학교 도서관에 <보보담>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일반인들도 구독 신청을 통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15 Financial Highlights

1. 손익 현황 (단위: 억 원)



2. 재무 현황 (단위: 억 원)



Financial Review

경영실적 분석

본 경영실적 분석 및 전망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재무정보, 영업실적 및 사건에 관련한 추정, 계획 및 예상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영자의 계획과 전략 등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경영실적 및 전망은 향후 당사가 처하게 될 정치·경제적 영업 환경을 반영한 추정계획 및 예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은 제반 정보에 대해 합리적 수준 이상으로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추정, 계획 및 예상은 작성일 현재 시점의 사항만을 서술하므로 당사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본 경영실적 분석 및 전망에서 '당사'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LS네트웍스'를 지칭합니다.

I. 서론

지난 2015년은 선진국의 수요 둔화, 중국의 성장 저하,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자원 수출국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세계 교역이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작년에 이어 성장 둔화 추세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LS네트웍스의 성장세도 꺾이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당사의 주력사업인 브랜드사업은 상반기부터 시작된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당사가 운영 중인 전 브랜드의 매출 감소를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글로벌 상사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사의 전략 지역인 러시아 및 CIS 국가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경제 제재, 유가 하락 조치로 인해 그동안 이뤄낸 매출액의 채권회수가 장기화 되면서 대규모 대손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사가 보유 중인 비수익성 부동산의 현금화를 위한 매각 과정에서 장부가와 매각가의 차이로 인한 대규모 매각손실의 발생도 당사의 2015년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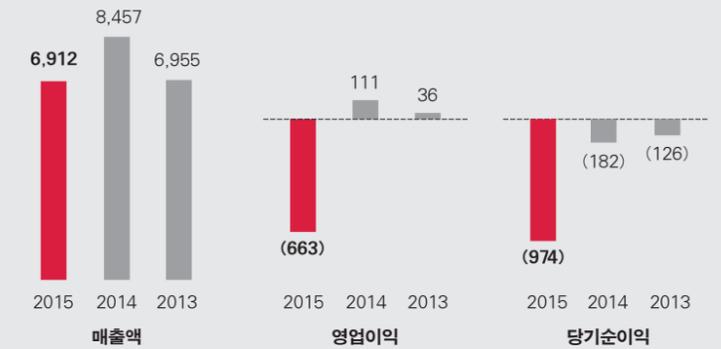
II. 영업실적

2015년 LS네트웍스의 주력사업인 브랜드 사업부문은 영위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가계소비 부진과 맞물리며 힘겨운 한 해가 되었습니다. 몽벨과 잭폴프스킨은 아웃도어 시장 전반의 성장세 둔화와 과열화된 시장 상황의 영향 속에서 2014년에 이어 지속적인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상사사업은 2011년 사업 개시 이후 지속적인 매출 증가세를 이루어왔으나 2015년 국내 건설, 상사업 전반에 대한 해외 부실 사업 및 장기화 채권에 대한 정부 당국의 엄격한 회계반영의 영향으로 당사 글로벌 상사사업 역시 일시적으로 대규모의 손실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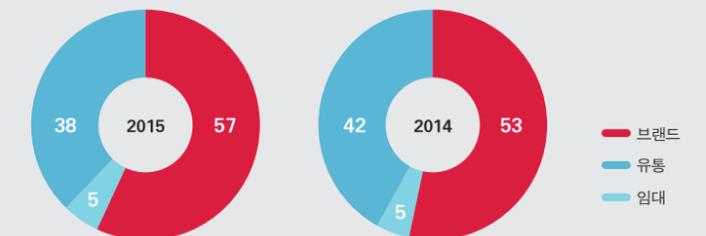
이에 따라 2015년 매출액은 전년도 8,457억 원 대비 18% 감소한 6,912억 원을 기록하였고, 영업이익에서도 전년 111억 원에서 (-)663억 원의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장기화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및 자산매각으로 발생한 매각손실로 인해 전년 (-)182억 원 대비 악화된 (-)974억 원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3개년 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단위: 억 원)



2015년 LS네트웍스의 사업부문별 매출액 비중은 브랜드사업(프로스펙스, 스케처스, 몽벨, 잭폴프스킨)이 57.1%, 유통사업(글로벌상사, 바이클로) 37.6%, 임대사업 5.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유통사업의 비중이 4.4% 감소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브랜드사업 및 임대사업의 비중이 각각 3.6% 및 0.8%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부문별 매출액 비중 (단위: %)



1. 사업부문별 경영실적

당사 브랜드사업은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내수 경기 환경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였습니다. 기존의 스타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이어갔고, 상품 라인의 정비와 다양화를 통해 변화를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소매 유통망의 변화에 발맞추어 기존 가두매장 중심의 영업망을 백화점, 아울렛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대형 홈쇼핑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홈쇼핑 상품을 론칭하였고, 자사 인터넷몰을 활용하여 판매 채널을 다각화 하였습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의 촉발 이후 스포츠 시장에 대한 소비심리 위축과 아웃도어 시장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인해 매출은 전년 대비 (-)12.7% 감소한 3,943억 원, 영업이익은 적자전환으로 인해 (-)223억 원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경영실적 분석

유통부문은 2011년부터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던 글로벌 사업부문에서의 일시적인 정체로 인해 성장세가 주춤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지역적 저변을 더욱 확대하고, 사업 아이템 다양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사업의 저변을 넓히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건설 및 상사업에 대한 부실 사업 및 채권에 대한 정부 당국의 보수적 회계반영 권고사항으로 인해 대규모의 대손을 반영하였고, 진행 사업에 대한 타당성의 재검증을 통한 저 위험(Low Risk) 사업군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통사업부문의 총 매출액은 2,5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8% 감소하였으며, 영업적자 또한 확대되어 (-)490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임대사업부문의 경우 정부의 각종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부동산 경기 전반이 여전히 침체된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수요 또한 감소 추세로 보입니다. 더불어 서울 지역 내 사무업무용 건물의 공급 과잉은 과당 경쟁으로 이어져 불안정한 시장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하에서도 당사는 LS용산타워를 주축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최상의 입지 조건 및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입주 고객사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LS용산타워 주변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동일 권역 내 면세점이 들어서며 유통인구가 확대되는 등 용산의 입지적 유리성이 강조되며 임대사업 및 보유 부동산의 가치는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5년 한 해 인천 CFS, 서울 대치동 부동산 매각 등으로 인하여 임대사업의 매출은 3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계약 조건갱신 및 비용절감 전략실행 등을 통한 수익성 강화로 영업이익은 143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5.4% 증가하였습니다.

구분	2015	2014	증감	증감률(%)
매출액	6,912	8,457	(1,546)	-18.3%
매출원가	4,900	5,787	(888)	-15.3%
매출총이익	2,012	2,670	(658)	-24.6%
매출총이익률(%)	29.1%	31.6%	-	-
판매비와관리비	2,675	2,559	116	4.6%
영업이익	(663)	111	(774)	-695.7%
영업이익률(%)	-9.6%	1.3%	-	-

2. 당기순이익

2015년 당기순손실은 9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전년도 대비 하락한 (-)14.1%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차입비용 증가로 인한 금융비용의 증가와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 비경상적 비용의 일시적 반영에 기인한 것입니다.

구분	2015	2014	증감	증감률(%)
금융수익	140	9	131	1401.0%
금융비용	183	209	(27)	-12.8%
세전순이익	(1,249)	(210)	(1,039)	-494.8%
당기순이익	(974)	(182)	(792)	-434.5%
당기순이익률(%)	-14.1%	-2.2%	-	-

III. 재무 상황

1. 자산

2015년 LS네트웍스의 자산총계는 13,1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보유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의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구분	2015	2014	증감	증감률(%)
유동자산	3,617	4,100	(483)	-11.8%
현금성자산	30	190	(160)	-84.2%
매출채권	960	1,605	(645)	-40.2%
기타수취채권	144	143	1	0.7%
재고자산	2,031	1,933	98	5.1%
매각예정자산	411	-	411	-
기타유동자산	41	229	(188)	-81.9%
비유동자산	9,531	10,026	(495)	-4.9%
유형자산	1,505	1,805	(300)	-16.6%
투자부동산	4,603	5,812	(1,209)	-20.8%
기타비유동자산	3,423	2,409	1,014	42.1%
자산총계	13,148	14,126	(978)	-6.9%

2. 부채 및 자본

2015년 LS네트웍스의 부채총계는 7,7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비율은 142.5%로 전년도의 부채비율인 119.5%에 비해서 상승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신용에 의한 약정한도에 여유가 있어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입금에 의한 자본의 조달은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 기존 주주에게는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영실적 분석

2015년 LS네트웍스의 자본총계는 5,42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8%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자사주 매입에 따른 기타 불입자본의 감소와 당기순손실 974억 원 발생, 배당 및 이익준비금 적립으로 인한 이익잉여금의 감소에 기인합니다. 당사는 당기순손실 발생에도 불구하고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식 가치를 보존함으로써 주주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비교식 요약 부채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15	2014	증감	증감률(%)
유동부채	3,696	5,320	(1,624)	-30.5%
매입채무	291	425	(134)	-31.5%
차입금	2,404	3,780	(1,376)	-36.4%
기타유동부채	1,001	1,115	(114)	-10.2%
비유동부채	4,031	2,370	1,661	70.1%
기타지급채무	498	531	(33)	-6.2%
차입금	3,329	1,241	2,088	168.3%
기타비유동부채	204	598	(394)	-65.9%
부채총계	7,727	7,690	37	0.5%

비교식 요약 자본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15	2014	증감	증감률(%)
자본				
자본금	3,941	3,941	-	0.0%
기타불입자본	(255)	(211)	(44)	-20.9%
기타자본구성요소	(3)	(7)	4	57.1%
이익잉여금	1,739	2,714	(975)	-35.9%
자본총계	5,421	6,437	(1,016)	-15.8%

Ⅳ. 현금흐름

당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51억 원의 현금유입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매출채권의 감소와 재고자산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593억 원의 현금흐름이 개선된 결과이며, 매출채권 회수기간의 단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차기 연도에는 더욱 개선된 현금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691억 원의 현금유출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관계 기업에 대한 재무투자의 확대에 기인한 것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해볼 때 593억 원의 현금흐름이 악화되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480억 원의 현금유입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사채발행 및 차입금의 증가 그리고 그에 따른 이자비용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2015년 당사의 순현금흐름은 160억 원 현금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비교식 요약 현금흐름표 (단위: 억 원)

구분	2015	2014	증감	증감률(%)
현금의 흐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1	(542)	593	109.4%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91)	(98)	(593)	-605.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80	726	(246)	-33.8%
현금의 증가(감소)	(160)	86	(246)	-285.6%

Ⅴ. 2016년에 대한 전망

2015년 LS네트웍스는 LS그룹에 편입된 2007년 이후 최초로 역신장하는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매출의 감소 및 영업이익의 적자전환을 보였으며, 영업외적 제약사항으로 인하여 당기순이익에서의 적자 폭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2016년 한 해에도 국제 경기는 불안정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제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대한민국 경제 상황의 특성상 내수 경기 또한 상당 부분 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LS네트웍스가 영위하는 사업 영역의 업황 경기도 자연히 상당 폭 제약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브랜드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내수 경기는 소비심리 부진과 가계부채 누적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상사사업의 전략 거점인 러시아 지역 경제 불황의 장기화 등의 대외적 환경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6년에는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전 사업 영역에 있어서 철저한 수익성 분석을 통하여 부진사업 부문에 대한 효율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업부문에서의 규모 확대보다는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사업 모델로의 성공적 전환을 시도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변화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실제로 브랜드사업에서 잭폴스킨의 철수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글로벌 상사사업도 수익성과 리스크 재검증을 통해 핵심 우량사업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영업외적으로 비용 절감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순차적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여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도 실행할 것입니다.

LS네트웍스는 전년도의 부진한 사업 성과를 만회하기 위하여 2016년에는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 및 시장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방안의 실천을 통하여 계획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주식회사 LS네트웍스 주주 및 이사회 귀중

우리는 별첨된 주식회사 LS네트웍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재무제표는 2015년 12월 31일과 2014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익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LS네트웍스의 2015년 12월 31일과 2014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함종호
2016년 3월 17일

咸鍾浩
함 종 호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16년 3월 17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주식회사 LS네트웍스 대표이사 귀하

우리는 첨부된 주식회사 LS네트웍스의 2015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하고 그에 대한 운영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주식회사 LS네트웍스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보고내용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결과를 보고하는 데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자는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 2015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기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경영자가 제시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대하여 회계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검토절차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이해하고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에 대한 질문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관련 문서의 확인 등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도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제정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적발하거나 예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을 기초로 미래 기간의 내용을 추정 시에는 상황의 변화 혹은 절차나 정책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적절하게 되어 미래기간에 대한 평가 및 추정내용이 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 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기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의 검토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5년 12월 31일 이후의 내부회계관리제도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본 검토보고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기타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이용자를 위하여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함종호
2016년 3월 17일

咸鍾浩
함 종 호

재무상태표

제 66 기 :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65 기 : 2014년 12월 31일 현재

제 66 기 :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65 기 : 2014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LS네트웍스

(단위: 원)

	제66기(말)	제65기(말)
자산		
유동자산	361,746,452,783	410,012,558,768
현금및현금성자산	3,005,758,017	18,954,621,323
매출채권	96,007,846,534	160,454,888,491
기타수취채권	14,367,079,592	14,253,653,400
기타금융자산	616,135,400	2,128,625,400
파생상품자산	1,100,164,447	882,943,871
재고자산	203,098,703,292	193,257,145,130
기타유동자산	2,407,929,501	20,080,681,153
매각예정자산	41,142,836,000	-
비유동자산	953,058,511,786	1,002,619,895,054
기타장기수취채권	19,547,956,240	22,071,888,496
기타장기금융자산	22,318,819	21,781,793
종속기업투자주식	50,641,231,545	57,163,655,539
관계기업투자주식	263,336,243,082	152,754,861,750
공동기업투자주식	1,189,059,654	725,676,851
유형자산	150,536,582,265	180,456,355,993
투자부동산	460,304,371,800	581,197,681,532
무형자산	6,852,483,423	7,646,394,914
기타비유동자산	628,264,958	581,598,186
자산총계	1,314,804,964,569	1,412,632,453,822

(단위: 원)

	제66기(말)	제65기(말)
부채와자본		
유동부채	369,592,586,936	531,956,573,666
매입채무	29,069,568,779	42,514,453,674
기타지급채무	68,842,979,161	69,418,729,075
단기차입금	172,206,555,335	118,665,257,604
유동성장기부채	68,150,000,000	259,349,992,778
기타유동부채	16,849,608,083	5,441,144,190
파생상품부채	1,227,564,203	34,788,308,523
당기법인세부채	13,246,311,375	1,778,687,822
비유동부채	403,092,537,987	237,017,014,457
기타장기지급채무	49,758,148,025	53,058,162,930
차입금	203,275,000,000	74,261,000,000
사채	129,638,682,041	49,820,711,230
기타비유동부채	3,818,701,446	3,248,421,621
파생상품부채	-	344,114,013
순확정급여부채	7,783,741,858	5,165,784,114
이연법인세부채	8,818,264,617	51,118,820,549
부채총계	772,685,124,923	768,973,588,123
자본		
자본금	394,091,500,000	394,091,500,000
기타불입자본	(25,536,525,395)	(21,107,987,730)
이익잉여금	173,867,723,938	271,370,584,544
기타자본구성요소	(302,858,897)	(695,231,115)
자본총계	542,119,839,646	643,658,865,699
부채와자본총계	1,314,804,964,569	1,412,632,453,822

포괄 손익계산서

제 66 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65 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LS네트웍스		(단위: 원)	
	제66기	제65기	
매출액	691,163,867,501	845,738,725,941	
매출원가	489,978,081,581	578,747,990,179	
매출총이익	201,185,785,920	266,990,735,762	
판매비와일반관리비	267,501,840,524	255,858,820,041	
영업이익(손실)	(66,316,054,604)	11,131,915,721	
기타수익	33,298,153,210	20,164,486,743	
기타비용	87,669,859,831	32,307,364,473	
금융수익	13,997,035,049	932,485,728	
금융비용	18,252,130,872	20,927,565,31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124,942,857,048)	(21,006,041,593)	
법인세수익	(27,560,592,588)	(2,788,285,850)	
당기순손실	(97,382,264,460)	(18,217,755,743)	
기타포괄손익	708,670,690	(723,349,33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316,298,472	(642,903,315)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316,298,472	(642,903,315)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392,372,218	(80,446,016)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392,372,218	(80,446,016)	
당기총포괄손실	(96,673,593,770)	(18,941,105,074)	
주당이익			
기본 및 희석주당손실	(1,333)	(251)	

자본변동표

제 66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65 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LS네트웍스		(단위: 원)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총계	
2014.1.1(보고금액)	394,091,500,000	(18,092,838,103)	290,537,750,207	(614,785,099)	665,921,627,005	
배당금의 지급	-	-	(306,506,605)	-	(306,506,605)	
총포괄손익:						
당기순손실	-	-	(18,217,755,743)	-	(18,217,755,74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642,903,315)	-	(642,903,315)	
파생상품평가손실	-	-	-	(80,446,016)	(80,446,016)	
자기주식의 취득	-	(3,015,149,627)	-	-	(3,015,149,627)	
2014.12.31	394,091,500,000	(21,107,987,730)	271,370,584,544	(695,231,115)	643,658,865,699	
2015.1.1(보고금액)	394,091,500,000	(21,107,987,730)	271,370,584,544	(695,231,115)	643,658,865,699	
배당금의 지급	-	-	(436,894,618)	-	(436,894,618)	
총포괄손익:						
당기순손실	-	-	(97,382,264,460)	-	(97,382,264,46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316,298,472	-	316,298,472	
파생상품평가이익	-	-	-	392,372,218	392,372,218	
자기주식의 취득	-	(4,428,537,665)	-	-	(4,428,537,665)	
2015.12.31	394,091,500,000	(25,536,525,395)	173,867,723,938	(302,858,897)	542,119,839,646	

현금흐름표

제 66 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65 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 66 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65 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LS네트웍스 (단위: 원)

	제66기	제65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107,510,095	(54,210,379,894)
당기순손실	(97,382,264,460)	(18,217,755,743)
비용자산:	108,554,451,185	53,831,478,984
법인세이익	(27,560,592,588)	(2,788,285,850)
금융비용	18,252,130,872	20,927,565,312
퇴직급여	3,728,174,011	2,981,619,524
감가상각비	12,860,909,599	13,691,877,222
무형자산상각비	930,004,091	1,403,675,240
외화환산손실	2,635,789,129	3,173,137,405
대손상각비	42,813,423,958	-
기타의대손상각비	10,275,982,012	-
파생상품평가손실	797,740,404	285,109,711
확정계약평가손실	30,273,803	611,764,234
종속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	11,617,431,867
공동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74,980,197	808,783,803
유형자산처분손실	1,946,173,289	787,608,666
유형자산손상차손	15,609,174,286	-
투자부동산처분손실	11,992,652,764	-
투자부동산손상차손	13,790,910,448	-
무형자산처분손실	-	84,000,000
무형자산손상차손	376,724,910	247,191,850
수익차감:	(21,748,330,150)	(7,904,601,950)
금융수익	13,997,035,049	932,485,728
채무면제이익	-	1,917,543,224
외화환산이익	5,338,842,989	3,654,622,060
대손충당금환입	-	313,853,695
파생상품평가이익	1,083,793,084	882,943,871
확정계약평가이익	16,371,363	-
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1,256,00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36,971,065	63,153,372
무형자산처분이익	19,316,600	140,000,000

(단위: 원)

	제66기	제65기
운전자본 변동:	15,683,653,520	(81,919,501,185)
매출채권	25,232,658,976	(75,099,171,994)
기타수취채권	(9,396,280,147)	(8,233,986,274)
재고자산	(9,841,558,162)	(22,976,713,677)
기타유동자산	16,658,305,306	(14,900,204,598)
기타비유동자산	392,026,474	511,731,430
파생상품자산(부채)	(13,930,074)	(217,751,874)
매입채무	(13,467,063,950)	23,434,527,056
기타지급채무	10,180,101,508	25,196,737,991
기타유동부채	1,352,940,799	(1,875,251,791)
기타비유동부채	(1,222,020,393)	(441,198,373)
퇴직금의 지급	(692,935,961)	121,243,508
사외적립자산	-	(2,972,230,405)
법인세의 납부	(3,498,590,856)	(4,467,232,184)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9,098,868,544)	(9,752,465,69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51,537,202,992	3,311,994,449
기타수취채권의 처분	1,942,488,279	132,185,200
기타금융자산의 처분	176,512,490,000	2,241,405,760
유형자산의 처분	10,062,713,470	347,998,370
투자부동산의 처분	52,121,068,858	-
무형자산의 처분	50,000,000	300,000,000
매각예정자산 처분대가의 선수	10,000,000,000	-
이자의 수취	848,255,735	290,218,469
배당금의 수취	186,650	186,65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20,636,071,536)	(13,064,460,141)
기타수취채권의 증가	98,645,600	1,166,196,800
기타금융자산의 취득	175,000,000,000	2,319,970,760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1,327,576,006	700,001,640

(→ 다음 페이지에 계속)

현금흐름표

제 66 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65 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LS네트웍스	(단위: 원)	
	제66기	제65기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110,581,381,332	-
공동기업투자주식의 취득	538,363,000	-
유형자산의 취득	11,854,986,020	7,545,651,362
무형자산의 취득	543,500,910	1,332,639,579
지분옵션의 결제	20,691,618,668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8,032,255,873	72,631,151,035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919,737,845,606	803,206,966,572
차입금의 증가	840,022,545,606	753,398,766,572
사채의 발행	79,715,300,000	49,808,200,0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871,705,589,733)	(730,575,815,537)
차입금의 상환	805,481,013,800	721,224,224,279
사채의 상환	50,000,000,000	-
자기주식의 취득	4,428,537,665	3,015,149,627
배당금의 지급	436,894,618	306,506,605
이자의 지급	11,359,143,650	6,029,935,026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15,959,102,576)	8,668,305,449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8,954,621,323	10,341,229,867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10,239,270	(54,913,993)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3,005,758,017	18,954,621,323

연결 재무상태표

제 66 기 :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65 기 : 2014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LS네트웍스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제66기(말)	제65기(말)
자산		
유동자산	389,329,292,315	433,711,852,031
현금및현금성자산	12,980,267,317	27,521,491,525
매출채권	99,063,043,463	163,090,292,591
기타수취채권	7,272,890,628	16,231,757,473
기타금융자산	616,135,400	2,634,625,400
파생상품자산	1,100,164,447	882,943,871
재고자산	210,505,443,551	202,138,237,180
기타유동자산	4,445,352,479	21,207,175,191
당기법인세자산	3,159,030	5,328,800
매각예정자산	53,342,836,000	-
비유동자산	1,131,754,048,031	1,156,696,377,764
기타장기수취채권	21,257,213,767	23,696,086,147
기타장기금융자산	22,318,819	21,781,793
관계기업투자주식	462,397,764,390	319,009,281,163
공동기업투자주식	761,938,395	386,991,102
유형자산	217,047,443,117	263,276,569,544
투자부동산	419,978,157,481	540,503,612,859
무형자산	8,028,374,603	8,557,962,639
기타비유동자산	765,912,421	778,651,228
이연법인세자산	1,494,925,038	465,441,289
자산총계	1,521,083,340,346	1,590,408,229,795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연결 재무상태표

제 66 기 :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65 기 : 2014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LS네트웍스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제66기(말)	제65기(말)
부채		
유동부채	390,337,088,857	545,423,722,979
매입채무	34,231,435,663	47,545,753,412
기타지급채무	70,367,146,411	71,201,688,150
단기차입금	173,696,555,335	120,065,257,604
유동성장기부채	75,785,553,150	262,728,415,662
기타유동부채	21,500,717,812	7,170,787,773
파생상품부채	1,227,564,203	34,788,308,523
당기법인세부채	13,528,116,283	1,923,511,855
비유동부채	440,860,677,791	275,631,201,093
기타장기지급채무	26,525,967,367	30,354,056,343
차입금	215,450,669,348	95,234,064,474
사채	129,638,682,041	49,820,711,230
기타비유동부채	2,592,521,172	1,496,323,838
파생상품부채	-	344,114,013
순환정금여부채	8,621,349,351	6,206,729,585
기타충당부채	1,040,335,740	726,529,193
이연법인세부채	56,991,152,772	91,448,672,417
부채총계	831,197,766,648	821,054,924,072
자본		
지배기업소유주귀속자본	689,885,573,698	769,353,305,723
자본금	394,091,500,000	394,091,500,000
기타불입자본	(25,567,976,795)	(21,139,439,130)
이익잉여금	319,881,589,617	395,801,575,693
기타자본구성요소	1,480,460,876	599,669,160
비지배자본	-	-
자본총계	689,885,573,698	769,353,305,723
부채와자본총계	1,521,083,340,346	1,590,408,229,795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

제 66 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65 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LS네트웍스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제66기	제65기
매출액	810,130,160,875	948,088,369,750
매출원가	594,926,656,534	671,565,454,692
매출총이익	215,203,504,341	276,522,915,058
판매비와일반관리비	283,593,667,547	273,843,737,036
영업이익(손실)	(68,390,163,206)	2,679,178,022
기타수익	36,155,418,529	24,636,037,201
기타비용	87,959,185,273	19,972,922,416
금융수익	14,124,260,704	1,109,391,762
금융비용	18,583,730,415	21,509,487,838
지분법이익	32,236,455,901	14,499,353,665
지분법손실	220,947,530	176,553,01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92,637,891,290)	1,264,997,385
법인세비용(수익)	(19,549,151,128)	504,940,751
계속영업이익(손실)	(73,088,740,162)	760,056,634
중단영업손실	(2,668,675,356)	(50,026,711)
당기순이익(손실)	(75,757,415,518)	710,029,923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

제 66 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65 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LS네트웍스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제66기	제65기
기타포괄손익	1,155,115,776	(2,186,849,89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274,324,060	(791,744,674)
확정급여의 재측정요소	274,324,060	(791,744,674)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880,791,716	(1,395,105,217)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392,372,218	(80,446,016)
(부의)지분법자본변동	489,698,808	(1,262,865,286)
해외사업환산차이	(1,279,310)	(51,793,915)
당기총포괄손실	(74,602,299,742)	(1,476,819,968)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75,757,415,518)	710,029,923
비지배지분	-	-
당기총포괄손실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74,602,299,742)	(1,476,819,968)
비지배지분	-	-
주당이익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손실)		
계속영업과 중단영업	(1,037)	7
계속영업	(1,001)	8

연결 자본변동표

제 66 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65 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LS네트웍스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2014.1.1(보고금액)	394,091,500,000	(18,124,289,503)	396,189,797,049
배당금의 지급	-	-	(306,506,605)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710,029,923
지분법자본변동	-	-	-
해외사업환산차이	-	-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791,744,674)
자기주식의 취득	-	(3,015,149,627)	-
2014.12.31	394,091,500,000	(21,139,439,130)	395,801,575,693
2015.1.1(보고금액)	394,091,500,000	(21,139,439,130)	395,801,575,693
배당금의 지급	-	-	(436,894,618)
총포괄손익:			
당기순손실	-	-	(75,757,415,518)
지분법자본변동	-	-	-
해외사업환산차이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274,324,060
자기주식의 취득	-	(4,428,537,665)	-
2015.12.31	394,091,500,000	(25,567,976,795)	319,881,589,617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연결 자본변동표

제 66 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65 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LS네트웍스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기타자본구성요소	지배기업의 소유주귀속	비지배지분	총계
2014.1.1(보고금액)	1,994,774,377	774,151,781,923	-	774,151,781,923
배당금의 지급	-	(306,506,605)	-	(306,506,605)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710,029,923	-	710,029,923
지분법자본변동	(1,262,865,286)	(1,262,865,286)	-	(1,262,865,286)
해외사업환산차이	(51,793,915)	(51,793,915)	-	(51,793,915)
파생상품평가손실	(80,446,016)	(80,446,016)	-	(80,446,016)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791,744,674)	-	(791,744,674)
자기주식의 취득	-	(3,015,149,627)	-	(3,015,149,627)
2014.12.31	599,669,160	769,353,305,723	-	769,353,305,723
2015.1.1(보고금액)	599,669,160	769,353,305,723	-	769,353,305,723
배당금의 지급	-	(436,894,618)	-	(436,894,618)
총포괄손익:				
당기순손실	-	(75,757,415,518)	-	(75,757,415,518)
지분법자본변동	489,698,808	489,698,808	-	489,698,808
해외사업환산차이	(1,279,310)	(1,279,310)	-	(1,279,310)
파생상품평가이익	392,372,218	392,372,218	-	392,372,218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274,324,060	-	274,324,060
자기주식의 취득	-	(4,428,537,665)	-	(4,428,537,665)
2015.12.31	1,480,460,876	689,885,573,698	-	689,885,573,698

연결 현금흐름표

제 66 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65 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LS네트웍스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제66기	제65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876,463,280	(47,902,541,708)
당기순이익(손실)	(75,757,415,518)	710,029,923
비용가산:	121,867,330,366	49,327,024,211
법인세비용(수익)	(20,301,854,434)	504,940,751
금융비용	18,666,515,200	21,661,632,981
퇴직급여	4,729,263,461	3,950,697,296
감가상각비	14,269,912,007	15,966,772,969
무형자산상각비	970,679,704	1,445,067,197
대손상각비	42,843,243,308	373,308,307
외화환산손실	2,640,280,502	3,182,457,231
파생상품평가손실	797,740,404	285,109,711
확정계약평가손실	30,273,803	611,764,234
유형자산처분손실	2,040,930,450	833,106,228
유형자산손상차손	18,469,216,685	-
투자부동산처분손실	11,992,652,764	-
투자부동산손상차손	13,790,910,448	-
무형자산처분손실	1,783,332	84,000,000
무형자산손상차손	376,724,910	247,191,850
기타의대손상각비	10,328,110,292	4,422,445
지분법손실	220,947,530	176,553,011
수익차감:	(52,953,430,822)	(22,348,546,759)
금융수익	14,124,260,704	1,109,391,762
채무면제이익	-	1,917,543,224
외화환산이익	5,353,282,089	3,674,874,087
파생상품평가이익	1,083,793,084	882,943,871
확정계약평가이익	16,371,363	-
유형자산처분이익	119,951,081	122,440,150
무형자산처분이익	19,316,600	140,000,000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	2,000,000
지분법이익	32,236,455,901	14,499,353,665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연결 현금흐름표

제 66 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65 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 66 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65 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LS네트웍스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제66기	제65기
운전자본 변동:	17,719,979,254	(75,591,049,083)
매출채권	24,784,999,125	(75,226,594,298)
기타수취채권	(9,243,927,056)	(8,261,438,755)
재고자산	(8,347,865,604)	(17,924,595,352)
기타유동자산	15,206,102,026	(15,006,333,421)
기타비유동자산	977,349,562	568,590,002
파생상품자산(부채)	(13,930,074)	(217,751,874)
매입채무	(13,347,889,728)	23,754,935,614
기타지급채무	9,951,199,282	25,842,225,993
기타유동부채	4,274,530,695	(1,729,028,734)
기타비유동부채	(638,146,337)	581,271,283
퇴직금의 지급	(1,285,746,304)	(341,903,828)
사외적립자산	(660,000,000)	(3,190,586,720)
법인세의 납부	(3,936,696,333)	(4,439,838,993)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8,031,852,624)	(10,239,756,687)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52,770,969,633	4,075,418,736
기타금융자산의 처분	177,018,490,000	2,248,755,760
기타수취채권의 처분	1,942,488,279	142,185,200
유형자산의 처분	10,712,178,961	970,725,644
투자부동산의 처분	52,121,068,858	-
무형자산의 처분	50,000,000	300,000,000
매각예정자산 처분대가의 선수	10,000,000,000	-
이자의 수취	926,556,885	413,565,482
배당금의 수취	186,650	186,65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20,802,822,257)	(14,315,175,423)
기타금융자산의 취득	175,000,000,000	2,825,970,760
기타수취채권의 취득	98,645,600	1,166,196,800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110,581,381,332	-
공동기업투자주식의 취득	538,363,000	-

(단위: 원)

	제66기	제65기
유형자산의 취득	13,042,530,347	8,983,591,284
무형자산의 취득	850,283,310	1,339,416,579
지분옵션의 결제	20,691,618,668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2,603,925,866	70,701,624,57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920,750,324,182	804,302,522,812
차입금의 증가	841,035,024,182	754,494,322,812
사채의 발행	79,715,300,000	49,808,200,0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878,146,398,316)	(733,600,898,241)
차입금의 상환	810,943,757,236	723,000,684,202
사채의 상환	50,000,000,000	-
자기주식의 취득	4,428,537,665	3,015,149,627
배당금의 지급	436,894,618	306,506,605
이자의 지급	12,337,208,797	7,278,557,807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14,551,463,478)	12,559,326,176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27,521,491,525	15,017,079,342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10,239,270	(54,913,993)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2,980,267,317	27,521,491,525

GLOBAL DREAM COMPANY

2016년, LS네트웍스는 성과 중심의 사업 재편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구축하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실행력으로
주주와 고객 및 이해 관계자들에게 더 큰 가치를 돌려 드리겠습니다.

국내 네트워크

본사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627-15
Tel. 055-330-7014

서울 사무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12층
Tel. 02-799-7114
www.lsnetworks.co.kr

해외 네트워크

LS Networks Co., Ltd. Moscow Office

902A, 12 Krasnopresnenskaya nab.,
Moscow, 123610, Russia
Tel. 070-4369-7590

LS Networks Co., Ltd. Vladivostok Office

7A Postysheva St., Vladivostok, 60048, Russia
Tel. 070-4369-7591

자회사

LS Networks Trading(Beijing) Co., Ltd.

Unit 01~03, 11th Fl., East Tower,
LG Twin Towers, B-12 of Jianguomenwai Avenue,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022, China
Tel. 86-10-5120-8600

케이제이모터라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53
모터라드 강남빌딩
Tel. 02-3453-9990
www.bmw-motorcycle.co.kr

스포츠포터사이클 코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27
세화빌딩 2층
Tel. 02-790-0999
www.ktm.co.kr

흥업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성안로 19-2
Tel. 043-258-2233

(주)베스트toyota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92 LS용산타워 3층
Tel. 02-2122-7701
www.toyotayongsan.co.kr

IR Contact 04386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12층
Tel. 02-799-7044 Fax. 02-6442-5423



04386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12층

Tel. 02-799-7114

Fax. 02-6442-5423

www.lsnetworks.co.kr